

# 말씀의 샘

## 변화의 열매를 찾으시는 주님 <누가복음 13:1~9, 고린도전서 13:11>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천지만물들을 가만히 보면 끊임없이 변화되려고 몸부림을칩니다. 봄이 되면 꽃이 피고 무성한 잎이 하루가 다르게 생겨나다가, 여름과 초가을에는 각자의 특성에 따른 열매들을 여겨저기서 맺고, 늦가을에는 잎의 색이 변하고 낙엽으로 떨어지다가 겨울에는 앙상한 뼈대를 드러냅니다. 짐승들도 계절이 바뀌면 털갈이를 하고, 어떤 동물들은 허물을 벗으면서 계절의 변화에 반응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개의 암컷은 평생에 10번, 수컷은 12번의 허물을 벗으며 크기가 자라갑니다. 곤충들도 알에서 유충으로, 유충에서 번데기로, 번데기에서 나비로 과정을 거치며 변화되어갑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살아있는 모든 천지만물들은 변화합니다. 제일 변화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바로 사람의 신앙입니다. 몸도 변화되고 현실도 바뀌어가는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의 신앙은 왜 이리도 자라질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10년이 가고 20년이 가도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하던 행동, 하던 말투, 하던 옛 습관과 못된 버릇들은 그대로 보존했다가 주님을 만나러 갈 때 까지 가져갑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으시는 변화'와 관련해서 두 가지로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 1. 우리 신앙은 말과 삶의 변화로 나타나야 합니다.

사람들은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안주하려고만 합니다. 신앙은 옴션에 머물고 옛 것을 움켜쥐고 변화되지 않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옛것을 버리고 새것을 받아들이는 게 신앙인데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것을 받아들이길 주저하며 믿지 않는 친구에게 알려지는 것을 부끄러워하며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고 또 나타나야 합니다.

**사도행전 11:25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26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일 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안디옥교회 성도들은 변화된 평가를 세상 사람으로부터 듣게 되었습니다. 영광스러운 별명입니다.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이웃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학교 친구가, 회사 동료가 먼저 알아볼 수 있어야 진짜입니다. 여러분의 변화의 모습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언어생활입니다.

**마태복음 12:33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주님은 나무의 열매를 그 나무를 알 수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계속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36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 날에 이에 대하여 심문을 받으리니 37 네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속에 들어 있는 것들이 말로 나오며 그것이 여러분 신앙과 삶의 열매이며 그것이 여러분의 참 모습입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의 마음이 바뀌고 삶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1:17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18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더라 19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다름 아닌 한나의 모습입니다. 은혜받고 약속을 받으면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삶의 태도가 바뀌어야 합니다. 걱정과 근심을 가지고 왔다가도 예배가 끝나고 그 모든 걱정 근심, 불신앙, 괴로운 마음을 다 버리고 홀가분하게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으로 변화되려고 몸부림치고 말씀을 붙잡고 마음을 바꾸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라고 말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잡생각, 미움, 상처... 버려두고 새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서 변화된 모습을 하나님과 세상에 보여주는 이 사람이 바로 크리스천입니다. 변화된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정말 아름다운 것입니다. 변화되는 것은 용서가 됩니다. 과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얼마나 완성이 되어가는지도 중요하지만 변화되고 있는 진행과정에 있다면 복되고 희망적인 것입니다. 완전히 우리가 거룩해질 수는 없습니다. 부족하지만 변화되는 과정 중에 하늘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변화될 수 있도록 허용된 시간이 얼마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포도원에 3년 된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주인은 3년 동안 열매를 기다렸습니다. 변화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한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안에 열매를 맺었어야 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3:6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7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삼 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8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9 이 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엿다 하시니라

포도원 품꾼이 주인을 설득합니다. 1년만 더 시간을, 길지 않은 시간을 기회로 얻은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상황도 이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오늘이라도 주님이 부르시면 가야합니다. 오늘 하루가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시간처럼 열심히 변화를 위해 몸부림을 쳐야합니다.

**둘째, 하나님께 믿음을 보일 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을 보여야할 때가 변화의 때임을 우리는 절감합니다. 보통 믿음을 보여야할 때는 힘든 때입니다. 대부분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여야할 중요한 때에 그 기회를 놓칩니다. 대부분 낙심하고 포기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무기력해지고 뒤로 물러가 침묵에 빠집니다.

**갈라디아서 6:8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9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정말 믿음을 심어야할 때 포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거두질 못합니다. 아브라함은 99세 때가 믿음을 보일 때였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으로는 1년 뒤에 이삭이 꼭 태어나야할 때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때가 아브라함은 가장 낙심했을 때, 가장 힘들 때, 모든 것이 끝났다고 포기하고 싶을 때였습니다. 여러분이 힘들 때가 믿음을 보여야할 때일 수 있습니다. 믿음을 보이려고 결단할 그 때 전능하신 하나님, 엘사다이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도할 때마다 계속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네 믿음을 보이라" 는 감동과 확신을 강하게 주십니다. 이 말은 우리 교회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여러분에게서 주님께서 믿음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보여야할 때는, 힘들 때이지만 곧 열매를 맺어야 할 때이며 하나님의 역사가 곧 나타날 때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12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육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개역한글)**

주님 앞에 믿음을 보일 때, 주님은 그것을 보시고 인정하신 후에 당신의 거룩한 일을 나타내시며 이루어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6년 11월 20일 주일예배 이 강화 목사

## 2016. 11. 27 주일 예배

찬양과 기도 ----- 찬양팀 (인도-구수진 사모)

성 경 봉 독 ----- 고린도전서 13:4~12

말 씬 선 포 ----- 이 강화 목사

"사랑만 남습니다."

축 도

두란노 소식 ----- 4면에 있습니다

## 예 배 안 내

주일 예배 : 주일 오후 2시

수요 예배 : 수요일 오후 8:00

금요 예배 : 금요일 오후 8:00

새벽 기도 : 화요일~토요일 오전 6:00

